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in Children's Textbooks of
the Chosun Dynasty

우 남 희*

Woo, Nam Hee

ABSTRACT

Seven textbooks for children used in homes and schools (sudangs) of the Chosun dynasty were examined to investigate how they taught emotional intelligence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contents of the book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4 abilities of emotional intelligence described by Salovey and Mayer (1966): (1) perception,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2) emotion's facilitation of thinking, (3) understanding and analyzing emotions, and (4) regulation of emotion to promot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the books valu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taught children how they perceive, appraise, and express emotions. The emotional ability to facilitate thinking was also emphasized, wherea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nalyze emotions was seldom mention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gulation of emotion was emphasized; that is, children were educated to control and depress their emotions rather than to express them naturally.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은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학입시에 필요한 지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은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규교육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고

하여 학교에 내는 등록금 외에도 수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자녀들을 사설학원에 보내고 있으며 과외지도를 시키고 있어 가정경제에 심한 불균형까지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입시 준비는 초, 중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많은 유아들이 학습지를 통하여 국어를 익히고 산수문제를 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심각한 교육의 현상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었으며 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자녀가 초등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부모들이 공부를 강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입시생들 중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가 시험준비만 열심히 한다면 그 외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 등은 소홀히 하여도 그대로 방치해 왔다.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과목에만 치중하고 도덕이나 윤리 등의 과목은 형식적으로 시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조선시대의 교육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 특히 유교적 교육으로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분화되지 않은 일종의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서봉연, 1982). 조선시대의 아동용 교재로 많이 사용된 사소절에 보면 그 시대의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교육보다 오히려 인성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圖書編社學規條曰, [古之教者, 教之人倫, 後世記誦餉章之習起, 而先生之教亡, 今教童子, 惟以孝悌忠臣禮義謙恥爲務, 其栽培涵養之方, 則宜誘之歌詩, 以發志意, 導之習禮, 以肅威儀, 諷之讀書, 以開知覺.] 今案此三條, 亦覺有義, 謹列于左

옛날에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올바른 도리 곧 인륜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시가와 문장을 기억하고 외우는 습관이 일어나자 선

생의 가르침이 망쳐졌다. 지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오직 효도와 공경, 충성과 신의, 예절과 의리, 청렴과 수치를 알고 실행하게 하는 데 힘쓸 것이고, 그것을 복돋아 기르는 방법은 마땅히 시와 노래로써 유도하여 그 의지를 발달시키고, 이로써 인도하여 예절을 익혀 위의를 엄숙하게 하도록 하고, 이로써 풍자하여 책을 읽어서 지각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김종권, 1993. p.285).

라고 하였다. 이는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문장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행하여야 할 예절과 태도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이계학, 1994; 최흥기, 1986). 즉,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五倫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올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적 능력을 강조하고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능(intelligence)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지능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개념에 따라 조선시대의 교육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교육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봄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본다.

지난 1세기 동안 지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능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능이 높은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아 왔다. Binet가 1905년 지능검사를 처음 제작하였을 때에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검사도구를 만들었으므로 그 이후 지능검사는 아동의 학습능력을 예측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 그

러나 이러한 지능검사의 결과는 학교 밖에서의 능력을 예측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직업이 학문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IQ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Goleman, 1995; Sternberg, 1997). 실제 인간의 삶에서 지적능력이란 성공의 20%정도만을 좌우하며 나머지 약 80%는 다른 변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Gibbs, 1995).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변인들 중의 하나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으로서 최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서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미국의 Salovey와 Mayer 교수(1990)는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하위 개념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감지하고(monitor), 그 내용을 구별하며(discriminate),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서 활용하는(use)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1996, p.193). 또한 이들은 Gardner의 다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중에서 사람에 관한 지능(personal intelligence)의 어떤 부분들은 정서지능과 매우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Mayer & Salovey, 1996, p.191). 이들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개념정의에서 결국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이며, 사고촉진을 위하여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정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1996, p.116).

이와 같이 Salovey와 Mayer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여 정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신과정들이 개념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능력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그러나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

작한 것은 1995년 New York Times의 기자 Goleman이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하고 Time지에 정서지능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부터이다. Goleman은 Salovey와 Mayer의 정서지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세분하여 첫째, 자신의 정서를 아는 능력(Knowing one's emotions; self-awareness) 둘째,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managing emotions) 셋째, 자신을 동기화 시키는 능력(motivating oneself) 넷째,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recognizing emotions in others; empathy) 다섯째, 대인관계를 다루는 능력(handling relationship)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지능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능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각 사회마다 독특한 것이므로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정서지능의 개념이 서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상 십 년도 채 되지 않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소위 정서지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능력들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예의범절로서 교육을 통하여 강조되어 왔다고 본다(우남희, 1998). Salovey나 Mayer가 지적하였듯이 정서의 표현 방법이나 표현 정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정서지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정서의 표현이나 정서의 조절이 어떻게 교육되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정서지능의 측정용 시도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교육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시기에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가정과 서당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손인수, 1991; 정세화,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교재인 千字文, 童蒙先習, 啓蒙篇, 童蒙須知, 明心寶鑑, 小學, 士小節 등 일곱 권의 책의 내용을 정서지능과 연관시켜 분석하고자 하였다(원서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문의 제약으로 한글 번역판을 사용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천자문은 양(梁)나라 주흥사(周興嗣)가 무제의 명을 받아 천 개의 낱글자를 운을 맞추어 녀자로 된 시 250구로 만든 것이다. 원래 무제는 왕희지의 글 중에서 1,000자를 추려 여러 왕들에게 서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였으나 낱글자로서는 문백이 서지 않았으므로 글을 잘 짓는 주흥사를 시켜 운에 맞추어 말을 만들도록 하였다고 한다(이민수, 1994). 이 천자문은 서당에서 강독의 가장 초보적인 교재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손인수, 1991; 정세화, 1997),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것은 이민수가 옮기고 을류문화사에서 발간한 천자문이다.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초기 명종 때의 유학자 박세무가 어린이의 교재로 지은 것으로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및 총론의 6편으로 되어 있다. 오륜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중국의 역사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기석(1996)이 번역과 해석을 하였고, 홍신문화

사에서 발간한 동몽선습을 기초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책 속에 함께 들어 있는 계몽편과 동몽수지도 함께 분석을 하였다. 계몽편은 작자가 전해지지 않으며, 본래 원문은 수편, 천편, 지편, 물편과 편명이 붙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기석의 번역에서는 편명이 없는 부분을 윤리편, 수신편으로 나누어 모두 6편으로 구성되었다. 동몽수지는 중국 남송의 대학자 朱熹가 어린이의 기본적인 예절을 기록한 것으로서, 어린이의 교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의 추적이 쓴 아동용 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으로서 고금문장가의 좋은 글을 따 모아서 엮은 책이다. 착한 행실, 타고난 분수, 효도, 바른 행실, 공부, 예절, 언어 생활, 친구 사귀, 부녀자의 행실 등에 관한 150여 가지의 금언 경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은 성백효(1995)가 번역하고 주를 달은 전통문화연구회편 명심보감이다. 소학은 중국의 宋代(고려의 중말기)에 朱熹가 하, 은 주 삼대의 소학에서 실시하던 교육 내용으로 된 글들을 모으고, 또 그 글과 관련되는 옛 성현들의 말과 행실을 수록하여 책을 만든 것이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 말기로 보고 있으며 사대부 자녀들이 대개 8세쯤 되면 유학의 초보로 배웠다고 한다. 이 책은 內篇과 外篇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내편은 入敎, 明倫, 敬身, 稽古의 네 편, 외편은 嘉言, 先行的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서봉연, 1982; 이기석, 1997).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재는 이기석(1997)이 번역하고 주를 달았으며 홍신문화사에서 발간한 소학이다. 사소절은 조선 영조와 정조시대를 살은 李德懋가 朱子의 小學의 내용이 시대적 공간적으로 거리감이 많음을 느끼고 당시 사람들

이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제1편(士典), 제2편(婦儀), 제3편(童規)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걸치는 온갖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손직수, 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습관형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童規편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된 교재는 金種權이 번역하고 해석을 붙이고 明文堂에서 발간한 사소절이다.

2. 연구절차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교재 중에서 한글 번역과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을 구입하여 이 책들의 내용을 Salovey와 Mayer(1996)가 정서지능의 요소로 제시한 4가지 능력, 1)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The Perception,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2) 사고촉진을 위하여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Emotion's Facilitation of Thinking), 3) 정서와 정서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Understanding and Analyzing Emotions), 4)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Regulation of Emotion to Promot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의 분류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일곱 권의 교재 내용을 Salovey와 Mayer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네 가지 능력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의 지각, 평가, 표현능력

Salovey와 Mayer는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은 정서지능의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단순한 능력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차 사람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 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배우며 자신의 정서상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동몽수지와 소학에서는 정서지각, 평가,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凡爲人子弟者는 須是常低聲下氣하여 語言詳緩

하고 不可高聲喧闐하며 浮言戲笑이니라 父兄長上이 有所教督이면 但當低首聽受하고 不可妄有議論하며 長上檢責이 惑有過誤라도 不可使自分解라 媿且隱默하다가 久却徐徐細意條陳云 此事는 恐是如此하니 向者에 當是偶爾遺忘이라하거나 或曰 當是偶爾思省未至니 若爾면 則無傷忤하고 事理自分明이라 至於朋友分上도 亦當如此니라. 凡聞人所謂不善에는 下至婢僕違過라도 宜自包藏하고 不應便爾聲言하고 當相告語하여 使其知改니라(동몽수지, 언어보추 p.192).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낮추고 숨을 가라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되며, 부형이나 웃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잠잠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경과된 뒤에 천천히 입을 열어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기를, '그 일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우연히 잊었습니다.'고 하거나

혹 말하기를 '우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시키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事理)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 벗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무릇 남의 선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아래로 비복(婢僕)의 잘못에 이르기까지도 마음속에 감추어 두어서 소리내어 남에게 말하지 말고, 마땅히 상대방에게 충고하여 그 허물을 알아서 고치게 해야 한다.

或所命이 有不可行者則和色柔聲하여 具是非利害而白之하여 待父母之許然後에 改之하고 若不許라도 苟於에 無大害者어든 亦當曲從니 若以父母之命으로 爲非而直行己志하면 雖所執이 皆是라도 猶爲不順之子니 況未必是乎아(소학, 외편의 가언, 제16장 p.241).

만약 부모의 명령하신 일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일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갖추어 여쭙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은 뒤에 고쳐야 한다. 만약 허락지 않으시더라도 진실로 사리(事理)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면 또한 마땅히 내 뜻을 굽혀서 부모의 명령에 좇아야 한다. 만약 부모의 명령이 그르다고 하여 곧장 내 뜻대로 행한다면 비록 내 생각이 모두 옳다 하더라도 오히려 순종치 않는 자식이 됨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함, 즉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표현해야 하는 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도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지 말고 마음속에 감추어 두라고 가르친다. 이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禮가 아니며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의 사고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얼굴표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poker face 라고 하여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직접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마음 상태를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정서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가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 표현은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차라리 미덕으로 간주되었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소학의 선행편에 송나라의宰相을 지낸 여공저(呂公著)의 아들 여형공(呂頌公)이 선생 초천지의 교육을 받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諸生이 小有過差어든 先生이 端坐하여 召與相對하여 終日竟夕하되 不與之語라가 諸生이 恐畏伏이어야 先生이 方略辭辭色하더라(소학, 외편의 선행 제1장.p.324).

焦千之는 제자 중에 조금이라도 허물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선생이 단정히 앉아서 불러다가 마주 대하여 하루해틀 다 보내고 밤이 새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가 두려워하여 복죄해야만 선생이 비로소 말씨와 얼굴빛을 조금 부드럽게 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선생 자신이 정서를 쉽게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無言의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 즉 정서를 읽는 것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학에 보면,

父母怒之어시든 不作於意하며 不見於色이 其次也요. 父母怒之어시든 作於意하며 見於色이 下也니라(소학, 내편의 계고, 제16장).

부모가 성내시거든 마음에 반발하지 않고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으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받아서 부모로 하여금 애처롭게 여기시도록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최상이다. 부모가 성내시거든 마음에 반발하지 않고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이며, 부모가 성내시거든 마음에 반발하고 얼굴빛에 나타내는 것이 최하(最下)다.

라고 하여 정서를 얼굴에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치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볼 때, 정서표현을 말이나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도록 억제할 하므로 우리의 전통교육에서는 정서인지와 정서표현의 이중성을 길러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말이나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더 깊은 정서의 내용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가르쳤다고도 보겠다.

한편, 소학(경신, 제19장. p.141) 등에서는 정서의 표현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함도 가르치고 있는데, 명심보감에 보면, 공자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子曰 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명심보감, 효행편, p.19).

공자가 말씀하였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는起居함에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초상을 당하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내리게 되면, 그 엄숙함을 다하느니라.

이상과 같이 소학, 명심보감, 동몽수지 등 여러 교재들 속에는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 평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정서는 절도 있게 표현하여야 함을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다. 이외에도 사소절(동규, pp.276-267), 계몽편(수신편, p.177) 등에서는 타인을 대할 때에 갖추어야 할 몸가짐 아홉 가지(九容)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서표현의 방법을 숙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2.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의 사고 촉진능력은 정서의 지각, 평가, 표현의 단계보다 좀 더 상위의 능력으로서 Salovey와 Mayer(1996)는 정서가 지적과정을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정서지능에는 정서를 적절한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사고 자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의 입장에서 낙천성을 설명하면서 難關에 직면하여 무기력, 무관심, 절망감 또는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효과를 갖는 것이 정서지능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교육에서의 학습 방법은 강독과 숙독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시와 노래로써, 좋은 기분을 유지하여 낙관적인 사고를 이끌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사고촉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조들이 시도한 내용을 보면,

十有三年이어든 學樂誦詩하며 舞勺한다(소학, 내편의 입교편, 제2장. p.17).

열세 살이 되면 악(樂)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작(勺)으로 춤추게 한다.

興於詩하며 立於禮하며 成於樂이니라(소학, 내편의 입교, 제11장. p.31).

시(詩)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예(禮)에서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세우며, 악(樂)에서 성정(性情)을 도야(陶冶)

하며 도덕적인 인격을 성취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예술 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시키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8세경부터 읽기 시작하는 소학에서 예와 악을 강조하는 교육을 언급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예술을 교육의 근간으로 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바른 감정을 갖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높은 인격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가 안정되고 행복감이 들 때 창의성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는데 소학에서도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諸葛武侯戒子書에 H 君子之行은 靜以修身이오 儉以養德이니 非澹泊이면 無以明志오 非寧靜이면 無以致遠이니라(소학, 외편의 제8장, p.226).

제갈무후가 아들을 훈계하기를 “군자의 행동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몸을 닦고, 생활을 검박(儉朴)하게 하여 덕을 길러야 한다. 담박(澹泊)이 아니면 뜻을 밝게 하지 못하고, 편안하고 고요함이 아니면 생각이 먼 데 이르지 못한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높고도 먼 이치를 탐구하여 알게 되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됨을 주시시키는 것이라고 보겠다. 대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한다. Goleman은 정서란 바로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는데(1995), 조선시대의 교육에서는 동기부여의 한 방법으로 문헌을 통해 조상들의 선행을 가르쳐 본받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몽편에서는

人比學問이면 固難知其何者 爲孝何者爲忠何者爲弟何者爲信이라 故로 必須讀書窮理하며

求觀於古人하며 體驗於吾心하여 得其一善하여 勉行之면 則孝弟忠信之節이 自無不合於天叙之則矣니라(계몽편,p.175).

사람은 학문이 아니면.....그러므로 반드시 글을 읽어서 이치(理致)를 궁구(窮究)하고, 옛사람의 행실을 관찰하여 내 마음에 체험(體驗)하여서 그 한 가지 선(善)이라도 얻어 이를 힘써 행한다면 ...

라고 함으로써 옛 사람들의 행실을 간접 체험으로 하여 사리판단을 옳게 함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동기화는 정서가 계획수립, 목표추구,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의 전통교육에서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정서의 이해와 분석 : 정서 지식의 적용

Salovey와 Mayer는 어린아이가 정서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 정서에 이름을 붙이고, 좋아한다는 감정과 사랑한다는 감정, 귀찮다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를 배우게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이 정서지능의 한 측면인 정서의 이해와 분석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보다 상위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나라의 교재 속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가장 하위단계로 구분한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분명하게 구분 짓기 어려웠다. 우리의 교재에서는 정서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으며,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모순된 정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 등 정서 자체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듯하다. 단지 어떠한 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식의 일방적이며 지시적 교육

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특히 여러 가지 정서가 교차할 수 있으며 정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보다는 정서표현 자체를 억제하도록 교육하였다고 보겠다.

賢者는 狎而敬之하고 畏而愛之하며 愛而知其 愆하고 憎而知其善하며 積而能散하며 安安而能 遷하나니라(소학, 내편의 경신 제2장 p.126).

현명한 사람은 친압하나 공경하며, 두려워하나 사랑 하며 그 악한 것을 알며, 미워하나 그 선한 것을 알 며, 축적해서는 흩을 줄 알며, 편안한 것을 편안하 게 여기지만 옮겨야 할 때에는 옮길 줄 안다.

라고 한 대목에서는 상반된 감정과 태도를 제시 하면서 이러한 상반된 정서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재에서는 이러한 정서의 모순성이 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단지,

風諫云 水底漁天邊雁은 高可射 低可釣어니와 惟有人心咫尺間에 咫尺人心不可料니라(명심보 감, 성심편, p.49).

풍간(風諫)에 말하였다.낮게 물 속에 있는 것은 낚을 수 있거니와,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지척간에 있음에도 지척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畫虎畫皮難畫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이니라(명 심보감, 성심편, p.49).

범을 그리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 못 하느니라.

와 같이 명심보감 몇 부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즉, 정서를 지각,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교재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감지하고 자신의 정서를 절제 조절하도록 가르치는 부분은 상당히 많으나, 정

서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4. 정서적, 지적 성장도모를 위한 정서조절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감정은 표현을 하여도 되지만 어떤 감정은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 중의 가장 상위의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의 개발은 우리의 전통교육에서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의 조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孫真人陽生銘云 怒甚便傷氣요 思多太損神이라 神疲心而役이요 氣弱病相因이라 勿使悲歡極하고 當令飲食均하며 再三防夜醉하고 第一戒晨 嘔하라(명심보감, 정기편, p.23).

<손진인 양생명(孫真人 陽生銘)>에서 말하였다. 성념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使役)당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고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재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近思錄云 應忿을 如救火하고 窒慾을 如防水하 라(명심보감, 정기편, p.24).

근사록(近思錄)에 말하였다. 분을 정계하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니라(명심보감, 戒性 篇, p.36).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느니라 라고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도 명심보감(정기편, p22, 治政篇, p.77), 소학 등에서는

敖不可長이며 欲不可從이며 志不可滿이며 樂不可極이니라.

오만한 마음을 다하게 해서는 안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되며, 즐거움을 극도로 누러서는 안 된다(소학, 내편의 정신 제2장. p.126).

처럼 즐거움조차 절제를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정서 표현은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삼갈 것도 강조하였는데,

蔡伯喈曰 喜怒哀樂 在心하고 言出於口하나니 不可不慎이니라(명심보감, 정기편. p.24)

채백개(蔡伯喈)가 말하였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其言箴曰 人心之動이 因言以宜하나니 發禁躁妄이라사 內斯靜專하나니라 矧是樞機라 興戎出好하나니 吉凶榮辱이 惟其所召니라 傷易則誕이오 傷煩則支하며 已肆物忤하고 出悖來違하나니 非法不道하여 欽哉訓辭하라(소학, 외편의 가언, p.294).

언잠(言箴)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난다. 말을 꺼냄은 망령됨을 금(禁)해야만 속마음이 안정하고 전일(專一)하게 된다. 더구나 말이라는 것은 일의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이다. 내 말이 방자하면 남의 말도 내 뜻에 거스르게 되고, 가는 말이 도리에 어긋나면 오는 말도 도리에

어긋난다.....”

易輶攸畏 屬耳垣牆 (天字文, p. 217).

쉽고 아무렇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말을 할 때는 마치 남이 담에 귀를 대고 듣는 것처럼 여기라.

爲人子弟者는 須是常低聲下氣하여 語言詳緩하고 不可高聲喧闐하며 浮言戲笑이니라 父兄長上이 有所教督이면 但當低首聽受하고 不可妄有議論하며(동몽수지, 언어보추 p.192).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낮추고 숨을 가라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리서는 안되며,

등을 통하여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니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소절(pp.274-275) 등에서는 정서조절을 위하여 행동의 절제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는 어릴 때의 안정된 몸가짐을 통하여 정서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서의 조절은 앞의 정서 표현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학, 내편의 계고, 제16장. p. 179; 소학, 외편의 선행 제1장, p.324 등)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것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가르쳐 우리 교육에서는 정서표현은 곧 정서조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

IV. 결론 및 논의

미국이나 서양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는 정서지능의 개념이 사실상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예절이나 오륜의 원리

를 통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되어져 오고 있음을 조선시대의 교재 내용들을 통하여 살펴본다.

정서기술들 중 대인관계 기술 능력에 대해서 Goleman(1995)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능력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전통교육 속에서는 지식의 교육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당교육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표현 능력의 면에서는 서양의 교육과는 전혀 달랐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던가 억제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생각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 표현(1단계)과 정서 조절(4단계)을 다른 단계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아동용 교재에서는 정서의 표현과 정서 조절을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서 표현은 억제되고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에서 필요한 정서 조절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상당히 잘 학습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 정서표현 방법을 아동의 발달단계와는 관계없이 교육함으로써 아이다운 아이보다는 점잖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의 안정을 통하여 사고의 촉진을 돕게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교재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강조를 하고 있었다. 특히 시와 악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예술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생각과 낙관적인 사고를 이끌도록 교육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서와 정서지식에 대한 이해와 분석 면에서는

소학에서의 몇 부분을 빼고는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정서의 본질과 정서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관한 면은 우리교육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조선시대에는 오륜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정서 표현방법도 매우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되는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주로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다. 문헌을 통하여 조상들의 선행을 본받도록 한다는 것도 아동 스스로의 동기 유발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동기부여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 교육에서는 보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보다 능동적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왔던 정서 지각이나 정서조절은 물론이고 그 동안 억제되어왔던 정서 표현이나 부족했던 정서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에서 지향하던 내용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7가지의 교재 속에서 정서지능의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방대한 내용을 지면의 부족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교재의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 교재 속에서의 정서지능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박세무(1996). **동몽선습**. 이기석역 서울: 홍신문화사.
서봉연(1982). 전통적 생활세계와 아동생활.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92.
성백효(1995). 명심보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손인수(1991). **韓國人의 教育歲時風俗**. 서울: 문음사.
- 손직수(1994).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7-130.
- 우남희(1998). 한국 전통교육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EQ, 제대로 알고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9-97.
- 유안진(1983).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116.
- 이계학(1994). 한국인의 전통 교육사상과 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5-275.
- 이계학, 유혜령, 손직수, 이홍우(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기석(1997). **소학**. 서울: 홍성문화사.
- 이덕부(1985). **사소절**. 서울: 집문당.
- 정세화(1997). **한국교육고전의 이해**. 이민수역. 서울: 양서원.
- 주홍사(1972). **천자문**. 서울: 을유문화사.
- 하대현(1997). 새로운 지능 개념으로서의 정서지능의 이해: 그 타당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자료집, 21-49.
- 한국어린이육영회(1996).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 모색: 유아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가).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흥선(1989). 한국교육이 추구하는 인간 특성.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Carlson J. G., & Hartfield, E.(1992). *Psychology of Emo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Ferrari, M., & Sternberg, R. J.(1998). The development of mental abilities and styles. In. W. Dam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2*, 899-946.
- Gibbs, N.(1995). The EQ Factor. *Time, Oct. 9*. 24-31.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Harris, P. L.(1991). *Children and emotion*.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Ltd.
- Martin, D, & Boeck, K.(1996). EQ: 감성지능 학습법. 홍명희(역). 서울: 해냄출판사.
- Mayer, J. D., & Salovey, P.(1996).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 교육연구소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자료집, 183-229.
- Salovey, P.(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새로운 지능의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 교육연구소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자료집, 5-34.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 D.(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 교육연구소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자료집, 103-153.
- Sternberg, R.(1997).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A Plume Book.